

## 베이비붐세대의 직업인식 변화필요성: 호모 라보란스(*Homo Laborans*)와 호모 루덴스(*Homo Ludens*)의 통합적 이해\*

이상훈 (새세대 고령화연구소)

### I. 서론

### II.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징

1. 샌드위치 세대
2. 일에 대한 욕구와 노동하는 동물(Animal Laborans)
3. 생애주기에 따른 특징
4. 관계의 소멸

### III. 호모 라보란스(Homo Laborans)와 애니말 라보란스 (Animal Laborans)

1. 호모 라보란스 (Homo laborans)
2. 노동/일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 IV. 호모 라보란스(Homo Laborans)와 호모 루덴스(Homo Ludens)의 통합적 이해

1. 호모 루덴스(Homo Ludens)
2. 직업인식 변화 필요성을 위한 호모 라보란스(Homo Laborans)와 호모 루덴스(Homo Ludens)의 통합적 이해

### V. 결론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6.35.11>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5A07049647)

---

• ABSTRACT •

---

The Need for Change in Baby Boomers' Perception of Work: A Holistic Understanding of *Homo Laborans* and *Homo Ludens*

Lee, Sang Hoon (New Generation Institute of Population Ageing)

This study aims to bring a desirable change in Korean baby boomers' perception of work by critically adopting the concept of *homo ludens* and attempting a holistic understanding of *homo laborans* and *homo ludens*. Many baby boomers are financially not prepared for retirement mainly because they have been pre-occupied with supporting both their parents and their children sometimes for longer than expected. Though in need of urgent reemployment, they should not let themselves fall into the category of what is defined as *animal laborans*. Baby boomers' reemployment without a fundamental change in perception of and thus attitude toward work only deemed to gain means of subsistence are often compelled to engage in dehumanizing labor as no more than soulless movement. This being the case, it is required that the concept of *homo ludens* or man the player should be properly understood and widely practiced and as a result perception of work/vocation can be fundamentally reformulated. Doing so will be instrumental in integrating *homo ludens* into *homo laborans*, which helps to create a holistic view of work/vocation. Here *homo ludens* refers to a vocational pursuit of what one enjoys and takes pleasure in doing. It also means finding a meaning of life as well as self-realization and economic reward in carrying out work/vocation. In other words, work/vocation can be regarded not only as a means of securing the basic necessities -- food, shelter and clothing -- of life, but also as self-realization including happiness and re-creation.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come up with theoretical and practical measures to establish a holistic understanding about work/vocation.

**Key words:** Baby Boomers, Work, Vocation, Theology of Work, *Homo Laborans*, *Homo Ludens*, Humanization, Pneumatology

---

## I. 서론

오늘날의 직업세계는 정년과 평생직장 개념의 퇴조가 점차 일상화되어 가는 것과 비례하여 퇴직 후 재취업과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구와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기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년과 직장인들이 실제로 맞게 되는 퇴직연령 간에 적지 않은 간격이 한 원인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정년디커플링’은 우리나라의 직장인 대다수가 실제로 느끼는 퇴직 연령이 50.9세로 나타났다는 최근의 한 조사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1,405명을 대상으로 ‘체감퇴직 나이’에 대한 설문에서 이러한 조사는 응답자의 66%가 ‘현재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는 반면 정년이 보장될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18.6%에 거친 사실을 포함하였다.<sup>1)</sup> 위의 조사 수치는 몇 년 동안 동일한 실시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 당분간 우리 사회의 뚜렷한 현상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판단은 이전에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도 직장인들의 ‘체감 정년’의 평균 연령이 48.8세이고, 이들의 70%가 현재 직장에서 정년퇴직하는 것에 관해 회의적이며 이러한 고용불안이 이직 및 퇴사를 고려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조사결과에 기초한다.<sup>2)</sup> 이 같은 직업안정성의 저하와 고용불안정은 위의 설문조사 응답자의 다수에 해당하는 베이비붐세대(대체로 1955년에

1) 김연숙, ‘직장인 ‘체감 퇴직 나이’는 50.9세...19%만이 정년보장 믿어’, 연합뉴스, 2016. 6. 1; 기업의 규정된 정년 (평균 57세)과 실제 직연령 (평균 53세) 간에 간격 (‘정년디커플링’)이 존재하고 왜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역사적·제도적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방하남 외 저,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2.

2) 손봉석, ‘직장인 ‘체감 정년’ 평균 48.8세...70% “고용 불안”’, 경향신문, 2013. 1. 24; 주은혜, ‘직장인들 70% 이상, 고용불안감으로 이직 고민’, 컨슈머와이드, 2015. 12. 24.

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인구집단의 상당수가 은퇴 후 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와 맞닿아 있다.<sup>3)</sup> 컨설팅 회사 맥킨지(McKinsey)의 ‘한국 보고서’는 중산층 가구의 절반이 소득은 늘지 않는데 지출은 계속 증가하는 가계경제 “뺏”에 빠져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중산층 가구 비율이 1990년 75.4%에서 2010년 67.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적자(赤字) 상태에 놓인 ‘빈곤 중산층’의 비중이 중산층 가구의 55%를 차지한다.<sup>4)</sup>

위의 사실과 다르지 않게 2010년 이후 은퇴를 시작한 714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는 저축이나 연금 같은 노후준비가 부족하여 이전같이 지출은 계속되지만 은퇴 후 소득 감소로 인해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sup>5)</sup> 더구나 우리 사회 경제의 중심축을 형성해온 이들의 퇴직으로 인한 노동인구감소와 중산층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가계소득정체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소비성향저하는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과 밀접히 연계된 인구의 고령화가 점차 진행됨에 따라 사회 복지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며 동반하여 일어나는 노후빈곤 문제의 심화는 사회 전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베이비부머들의 불충분한 노후 준비는 이들이 지니고 있는 특징적인 가치관과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어 보인다. 이를테면, 가족부양에 대한 이해가 세대별로 차이를 보임으로 야기된 전통적인 부양체계의 변화 혹은 약화가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세대 간의 부양에 대한 이해에서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은 부모부양의 의무를 지려는 마지막 세대

3) 금재호외, 『베이비부머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한국노동연구원(2013), 30; 이용재, “베이비붐세대의 노후준비 특성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5(2013), 253-261; 최동수, “중산층40%, 은퇴후 빈곤층 된다,” 머니투데이, 2015. 12. 2.

4) ‘한국 중산층 절반이 빈곤층 추락 위험 있다’, 사설, 조선일보, 2013.04.15.

5) 이경식·김화영, “퇴직 빈곤 벼랑에 선 50대 <하> 노년이 두려운 베이비부머’, 국제신문, 2014. 3. 6.

인 반면 자신들의 노후는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첫 세대라고 말할 수 있다.<sup>6)</sup> 세대 간 부양체계에 대한 베이비부머들의 이러한 인식은 이들의 “사회화”는 “1960년대 대가족” 환경에서 이루어졌지만 “1970년대 핵가족으로서의 가족구조변화”를 가장 먼저 겪은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경험의 영향 하에 “전통과 혁신이라는 양면적 가치관”이 공존하는 베이비부머들의 가족관과<sup>7)</sup> 대조적으로, 자식으로서 부모부양에 대한 책임과 병행하여 노후에 부모로서 자녀들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계획이 바람만큼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시작한 베이비붐 세대가 체계적인 은퇴준비 교육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다수는 적절한 준비 없이 은퇴 후의 삶과 맞닥뜨리고 있다. 따라서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퇴직자에 대한 체계적 재취업 교육을 통해 제2의 경제활동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sup>8)</sup> 특히 베이비부머 구직자들의 기술과 지식 및 경험을 활용하고 재교육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산층을 지키는 길이고, 생산지향적인 지속가능한 복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그런데 중년기의 베이비부머들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시안이 준비되지 않은 노후로 인한 제2의 경제활동이란 경제적 이슈만이 아니라 는 것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또 다른 이슈는 비경제적인 것이며 이러한 관심의 이유는 우리가 ‘노동하는 인간’(Homo laborans)으로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베이비부머들이 맞고 있는 중년기는 ‘제2의 성장’을 위한 의미 있는 삶의 시도에서 행복의 근거를 발견하고 자신이나 가족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이웃과 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삶을

6) 정성호, 『중년의 사회학』(서울: 살림, 2006), 66.

7) 방하남외, 『한국 베이비붐세대의 근로 생애(Work Life) 연구』 한국노동연구원(2010), 10.

8) 안재성, ‘작년 지하경제 규모 290조원…GDP의 23%’, 세계파이낸스, 2013. 3. 3.

추구해야 한다.<sup>9)</sup>

그런데 지금 까지 우리는 생계를 위한 일과 직업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사회경제적 ‘현실’ 속에서 살아왔다. 이러한 직업인식에 변화가 없이 시도되는 베이비부머들의 재취업 혹은 제2의 경제활동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인간화시키는 노동과 ‘고된’ 일을 매일 반복해야 하는 ‘인간’을 가리키는 ‘노동하는 동물’ (Animal laborans)로 전락할 수 있다.<sup>10)</sup> 본 연구는 따라서 베이비부머들의 재취업전선에서 의미 있고 행복한 제2의 경제활동에 요구되는 직업인식 변화를 위해 보다 인간화하는(humanize) 일과 직업을 향한 ‘호모 루덴스’(Homo ludens, 유희인) 개념을 논의 및 도입하고자 한다. 이는 ‘호모 라보란스’에만 제한된 직업관이 야기할 수 있는 노동의 소외현상과 일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호모 라보란스’와 ‘호모 루덴스’의 통합적 이해를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이어서 ‘호모 라보란스’와 ‘호모 루덴스’의 통합적 이해는 일과 ‘놀이’ 혹은 노동과 ‘여가’를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보완적으로 인식하는 노동/일 그리고 일의 신학에 대한 성령론적(pneumatological)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후자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 II.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징

### 1. 샌드위치 세대

한국의 베이비붐세대는 대개 부모부양을 당연한 도리로 여기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짊어지고 있지만 자신들의 노후 생계는 자식들에게

9) Willam Sadler, *The Third Age*, 김경숙 역, 『서드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서울: 사이, 2006), 149-150.

10) 채진원, “프락시스(praxis) 관점에 있어서 아렌트와 마르크스의 횡단성(transversality),” 『철학사상』 33(2009), 275-306.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sup>11)</sup> 이처럼 베이비부머들은 위로는 부모세대와 아래로는 자녀세대 사이에 ‘끼어있어’ 이중의 경제적 부담을 안은 채 그들의 은퇴와 노후는 적절히 준비하지 못하는 ‘샌드위치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양 세대 사이에 ‘끼어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빈번히 작용하는 고비용적 의무 구조는 세대 간에 존재하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어느 정도 있다.

이와 관련 사회학자 송호근은 “가치관이 서로 다른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개성 강한 주장”을 이유로 베이비부머들을 ‘쪼어 짜이는 세대’라고 불렀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가족관의 차이를 보이는 윗세대인 부모와 아랫세대인 자녀 사이에 놓인 베이비부머들이 이중으로 짊어지는 경제적 부담만큼 양 세대의 특징적인 의식과 문화가 지우는 부담도 직면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한다. 이들 베이비부머들은 부모들이 요구하는 “고답적·복고적·전통적 행위 양식”을 받아들여야하는 동시에 자녀세대들이 주장하는 “현대적 소비합리성과 평등한 행위 규범”도 수용해야 하는 입장에 처해있다.<sup>12)</sup> 이러한 분석에서 발견되는 점은 부모부양을 당연한 의무로 간주하는 베이비부머들의 전통적 의식과 자녀로서 부모부양에 대해 소극적이고 개인주의적 시각을 보이는 에코세대(1979-92년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의 자녀세대)의 시각차이다.<sup>13)</sup> 이들 양 세대 사이에서 발견되는 가치관의 차이를 감내해야하는 낀 세대란 위치에 이미 양 세대로부터 초래되는 이중적인 경제적 부담의 현실이 암시되어 있다.

11) 정성호, 『중년의 사회학』(서울: 살림, 2006), 66.

12) 송호근, 『그들은 소리 내 울지 않는다』(서울: 이와우, 2013), 195.

13) 박신영, ‘이기적인 ‘에코세대’...부모 의존도 높고 부양책임감은 약해’, 한국경제, 2012. 11. 30. 한편 자녀의 부모부양에 대한 유교적 가치관이 사라졌다가 보다는 모든 세대가 경제적 불안정을 겪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짐에 따라 부모부양을 전적으로 자녀나 가족의 의무로 묶어두기보다 이 문제를 위한 “사회 또는 정부의 개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이호영 외, 「디지털세대와 베이비붐세대 비교연구’, 미래창조과학부, 2013. 12. 139).

더욱이 베이비부머들은 위에 언급된 사회경제적 압박에만 노출되어 있지 않다. 사회경제적 압박은 그들에게 심리적·정신적 차원에까지 후유증을 유발한다. 사실 많은 한국의 4050세대가 무기력감과 우울함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며 그 이유로 전문가들이 가장 먼저 지목하는 것은 이들이 경험하는 “경제적·사회적 위기감”이다. 구조조정으로 “생존투쟁”에 준비 없이 뛰어들 수밖에 없는 탓에 가족생계를 책임지기가 어려울 만큼 “사회 환경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는 것이다.<sup>14)</sup> 정신적 저하를 겪는 대부분의 중년들은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온 “바른생활인”이지만 과거와 같은 ‘능력’을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하며 무엇보다도 지연된 “자식의 독립”에다 점차 늘어나는 평균수명이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sup>15)</sup>

## 2. 일에 대한 욕구와 노동하는 동물(Animal Laborans)

같은 맥락에서 경제학자 김태유는 그의 『은퇴가 없는 나라』에서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은 “내 집 마련, 부모봉양, 자녀 뒷바라지”에 전념하느라 자신들의 미래와 노후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정년이 지나서도 제2의 경제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 감소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의미에서 “일할 의욕, 일할 능력, 일할 필요”가 있는 베이비부머들은 우리 경제에 ‘또 다시’ 주어진 “희망이자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과거에 비해 신체적 능력이 저하될 수도 있는 중년이지만 여전히 업무능력을 갖춘 거대인구집단의 생산적 활용은 지금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선진국 대열

14) 채윤경, ‘4050 마음의 병, 우울증’, 중앙일보, 2013. 6. 8.

15) 같은 글.

16) 김태유, 『은퇴가 없는 나라-국가 경제를 이모작하라』(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3), 32-33.

진입”과 “복지재원 확대와 복지대상 감소에 따른 선진 복지사회의 건설”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베이비부머들이 일과 직업에 대해 이전과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또 다시’ 혹은 심지어 ‘노동하는 동물’ (Animal laborans)적 재취업 전선에 재차 뛰어들어야 하는가? 사회학자 송호근은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이 우리 경제를 굳건히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인생과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진단한다.<sup>18)</sup> 반성적 성찰이 배어나는 그의 지적은 그것이 갖는 일차적인 의미 뒤에 숨겨져 있는 베이비붐 세대를 지배하는 노동의 소외현상과 심지어 비인간화의 경향성을 지닌 직업 인식 및 사회경제적 가치관을 엿볼 수 있다.

사실 베이비부머들의 근로환경과 직무 스트레스가 심리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룬 연구는 이 양자 간에 상관성이 존재함을 밝혀주고 있다.<sup>19)</sup> 구체적으로 박민정·김형선은 우선 은퇴 이후나 노년기의 “심리적 건강”과 “정서적 어려움의 극복”은 노년기 이전의 “심리적 안녕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 베이비부머들의 삶의 질을 위한 조건과 준비는 그들이 노년기로 접어들기 전 현재 시점인 중년기에 확보 가능한 “심리적 안녕감”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sup>20)</sup> 따라서 지금 중년기에 있는 베이비붐세대의 근로환경과 직무스트레스가 심리적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 요구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sup>21)</sup> 위의 연구에

17) 같은 책.

18) 송호근, 앞의 책, 232-233.

19) 박민정·김형선, “베이비붐 세대남성의 근무환경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0-1(2016), 18.

20) 같은 글.

21) 같은 글. 베이비붐세대 남성근로자의 반 이상이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따르면 노동과 일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단순 노무직, 일용근로자, 열악한 근로환경의 경우 “심리적 안녕감”이 낮게 나타났고 과도한 초과 근무와 주말 교대근무, 직무 불안정성, 불충분한 보상, 중앙값이상의 직무 스트레스 등도 “심리적 안녕감”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었다.<sup>22)</sup> 나아가서, 근무 환경이나 직업/일 자체의 성격이 가족친화적 생활 패턴에 우호적이지 않고 가족과의 소통과 건강한 관계 그리고 적절한 쉼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리적 안녕감”을 잃게 할 뿐더러 만성적 신체·심리적 질환의 발생으로도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23)</sup> 이는 안정된 일자리 및 공정한 임금체계와 더불어 인간화시키는 노동 개념의 실현 역시 건강하고 행복한 제2의 경제활동에 중요함을 말해준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인간이 ‘호모 라보란스’이면서 ‘호로 루덴스’적 측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 아니라 노동/일과 관련하여 ‘호로 루덴스’적 측면이 양성화되고 발현될 필요성이 있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sup>24)</sup>

### 3. 생애주기에 따른 특징

이미 우리 시대가 진입하였고 향후 미래 사회에서 심화될 인구 고령화는 새로운 ‘생애주기’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 모든 개인은 인구고령화와 이에 동반되는 ‘100세 시대’ 및 수명연장의 틀에서 생애에 대한 재규정과 삶에 대한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베이비부머들은 앞으로의 삶을 교육, 일, 여가가 ‘직선행’으로 “단순화”된 이전의 패

---

근무한 것으로(위의 글, 23) 나타났고 이러한 과중한 노동시간은 호모 루덴스의 측면이 축소되거나 소홀히 여겨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22) 위의 글, 26.

23) 위의 글, 25.

24) ‘호로 루덴스’와 그 함의에 관해서는 IV. ‘호모 라보란스와 호로 루덴스의 통합적 이해’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턴에서 탈피하여 이들 세 요소가 “전 생애”에 걸쳐 중첩적으로 되풀이되는 ‘순환적’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은퇴나 퇴직 후를 그저 “유휴시간”만이 아니라 교육과 유무급 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창조적 삶”으로 만들어 가야한다.<sup>25)</sup> 이를 위해 중년 이후에도 “변화와 발전”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제2인생’ 혹은 ‘인생 2모작’에 대한 인식과 실천 노력이 요구된다.<sup>26)</sup> 예를 들어 에릭 에릭슨(Erik Erikson)의 인생주기론이 이에 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한다. 그에 따르면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70세~75세까지로 알맞은 재조정이 필요한 중년기에 수행해야할 ‘인생의 과제’는 사회와 더 넓은 공동체를 위해 “가치” 있는 일과 활동을 하는 것이다. 에릭슨이 ‘생산성’(generativity)이란 개념으로 설명하는 이 시기의 과제는 공익을 위한 “직업 활동이나 사회봉사”, 문학과 예술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의 창조적 노력과 성취, 젊은 세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sup>27)</sup> 중년기의 이러한 특성은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노동 개념에서 탈피하려는 점에서 호모 루덴스적 측면이 드러나고 요구되며 나아가서 일과 놀이와 활동과 여가 간의 비분리성과 상보적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호모 라보란스와 호모 루덴스의 조화 가능성이 발견되기에 통합된 이해가 시도될 수 있다.<sup>28)</sup>

25)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00세 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보도자료, 2011. 5. 26: 23-24.

26) 배영순 외,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 사무직 중년층을 중심으로」, 『희망리포트』, 희망제작소 2015. 2: 30.

27) 최성재,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화사회』(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446; 유사한 이론을 제시하는 다른 저자들의 논의를 위해 다음을 보라: Willam Sadler, *The Third Age*, 김경숙 역, 『서드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서울: 사이, 2006), 149-150; Peter Laslett, *A Fresh Map of Life: The Emergence of the Third Age*(Cambridge: Harvard University, 1991).

28) 한편,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인 동호회 출석과 자원봉사활동이 소득이 두 배 증가할 때와 동일한 정도의 행복을 느끼게 한다. Derek Bok, *The Politics of Happiness*, 추홍희 역, 『행복 국가를 정치하라』(서울: 지안, 2011), 49.

#### 4. 관계의 소멸

관계는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계의 형성과 유지를 시도하고 소멸과 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적이고 사회적 노력의 요구된다. 그런데 퇴직과 은퇴를 전후해서 경험하게 되는 공통점 중 하나는 관계망의 변화이며, 특히 ‘공적 관계망’(public network)의 축소나 약화가 급격히 진행된다. 베이비부머들에게도 직장을 떠나는 것은 ‘공적 관계망’이 수명을 다하고 조만간 쓸모없어진다는 의미이며 ‘사회단절’이 심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이때다. 이때를 기점으로 “가족 관계망”(family network)과 절친한 동료들 포함한 “심리적 거리가 없는 집단”인 “친밀 관계망”(intimacy network)을 제외하고 전자보다 거리가 먼 다른 “친근 관계망”(familiarity network)과 ‘공적 관계망’은 서서히 혹은 급격히 사라져버린다.<sup>29)</sup> 결국 퇴직자들은 “가족 관계망”과 “친밀 관계망”으로 구성된 ‘근린 관계망’으로 “축소와 위축”을 겪으며 “협소한 공간”의 관계망 안에서 30년 이상의 짧지 않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sup>30)</sup> 관계망의 급격한 소멸과 사회적 단절은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50대 베이비붐 세대의 높은 자살률에서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송호근은 “친근 관계망”과 “공적 관계망”의 활용과 회복을 추천한다. 지자체가 주관하는 사회사업에 참여하거나 시민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해 지역 활동을 돕는 것을 예로 든다.<sup>31)</sup> 이는 앞으로 살펴볼 호모 루덴스적 혹은 호모 루덴스와 호모 라본란스가 통합된 의미의 사회활동에서 다양하고 적절하게 실행될 수

29) 사회학자 송호근은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에서 “친근 관계망”은 “비슷한 성격과 유형의 집단이지만, 친밀 관계망에 비해서는 심리적 거리가 약간 먼 그룹”으로 정의하고 “공적 관계망”은 “직장생활을 할 때 맺었던 공적 관계에 속한 사람들로서 사생활 얘기를 하기 어렵고 이해 당사자로 만나는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위의 책, 174-175).

30) 위의 책, 175.

31) 위의 책, 178.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베이비붐세대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이에 따른 그들의 삶의 자리는 직업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고 이러한 도전적 변화는 베이비부머들에게 사회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 정신적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초래한다. 그 결과 베이비부머들이 이전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많은 부담을 안고 또 다시 노동의 ‘소외현상’ 속에서 비인간화되는 ‘노동하는 인간(Homo laborans)’으로 되돌아가거나 ‘노동하는 동물’(Animal laborans)적 삶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다른 한편으로는, 생애주기에 따른 특징과 관계의 소멸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노동하는 인간’으로서의 베이비부머들을 ‘노동하는 동물’의 굴레를 씌우는 대신 2차 성장(second growth)을 위한 “변화와 발전”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창조적 삶”을 추구하는 ‘제2 인생’을 유도하며 이를 통해 “친근 관계망”과 “공적 관계망”의 회복을 위한 노력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 III. 호모 라보란스(Homo Laborans)와 아니말 라보란스 (Animal Laborans)

삶은 성공이 아닌 성장의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인간의 품격』에서 저자 데이비드 브룩스는 인간 본성의 두 가지 상반된 면을 각각 아담 I, 아담 II로 구분하였다. 아담 I은 우리의 본성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세상의 야망을 좇는 측면으로 “외적인 아담”이라 일컫는다. 어떤 것을 “건설하고 창조하고 생산하고 발견”하고 싶어 하는 아담 I은 높은 지위와 승리를 얻고자한다. 반면 아담 II는 “특정한 도덕적 자질을 구현”하길 원하는 “내적인 아담”이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품성을 소유하길 바라는 아담 II는 선하게 “행동”할뿐 아니라 “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그는 “친밀한 사랑”을 베풀고, 타인을 위해 “희생”하고자 하며, “초월적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여, “피조물”과 “자신의 가능성”을 소중히 여기는 영혼을 소유하길 희망한다. 아담 I은 “성공”인데 반해 아담 II는 “자선, 사랑, 구원”이 좌우명이다.<sup>32)</sup>

이처럼 충돌을 일으키는 두 아담 사이에 있는 우리는 영속적인 자기 갈등 속에 빠져있다. 우리는 이 두 본성 모두를 실현해야만 하기에 화해할 수 없는 양자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사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아담 II의 상실로 회복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처럼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아담 II 보다는 아담 I에 치중한 삶을 살아왔다. 그리고 아담 I의 생존이 아담 II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년기 베이비부머들은 외적 아담과 내적 아담 모두를 상실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일과 직업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게 되고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여 보람을 느끼게 되며 자기의 이상과 꿈을 가꾸고 실현하게 된다. 하지만 심신을 훼손시키는 고역과 무의미한 노동을 매일 되풀이해야 하는 직업인에게는 일의 즐거움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분야에서 탁월함을 이루고 싶은 욕망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생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일과 노동의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인간과 삶의 다른 측면인 ‘호로 루덴스’적 일/노동과 인간이해 및 실천이 요구되며 그 시작은 이러한 노동의 소외 현상의 한 예인 ‘노동하는 동물’로 전락시키는 노동/일의 비인간화 패러다임에서 탈피하는데 있을 것이다.

32) David Brooks, *The Road to Character*, 김희정 역, 『인간의 품격』(서울: 부키, 2010), 5-7.

## 1. 호모 라보란스 (Homo laborans)

인간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 중 노동은 그러한 조건에 관련된 활동이다. 인간이 일을 하는 것은 삶을 살아가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기에 ‘호모 라보란스’는 인간에게 본질적인 존재양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범위한 인간의 타락한 모습들이 노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 한 측면이 노동에 동반되는 “정신적, 육체적 고생”이며 노동은 “피곤하고 어지럽고 단조로운 일”이외 그 어떤 것도 아니다.<sup>33)</sup> 구체적으로 이것은 사람이 “단순한 생산 도구”로 취급되거나 일중독(workaholics)에 시달리는 경우와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언제나 똑같은 순환” 안에서 진행되는 “노동의 ‘노고와 고통’”이 반복성과 영속성을 지니게 되며<sup>34)</sup> 더구나 “완전히 고립되어 노동”한다면 인간은 ‘노동의 동물’로 전락할 수 있다.<sup>35)</sup> 이러한 비인간화시키는 노동으로 사람을 “노동하는 동물로 격하”시킨 근대사회<sup>36)</sup>와 이후 그 연장선상에서 이의 최소한 부분적인 재현은 비인간화된 인간 삶의 적나라한 현실을 내비치고 있다.

한국의 베이비부머들은 생계를 위해 퇴직이나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 등 제2의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sup>37)</sup> 인생 전반전에는 업무역량과 최소한 어느 정도 매치되는 일을 하였겠지만 은퇴나 퇴직 후에는

33) 김재영 편저, 『직업과 소명』(서울: IVP, 1989), 22.

34) Hannah Arendt, *The Human Condition*, 이진우·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서울: 한길사, 1996), 153.

35) 위의 책, 74.

36) Han Byung Chul, *Müdigkeits Gesellschaft*, 김태환 역, 『피로사회』(서울: 문학과 지성서, 2012), 38.

37) 그런데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특성과 정책방향」 보고서는 창업을 준비하는 베이비부머들이 많으나 준비도가 낮은 생계형 창업은 폐업률이 높고 재기가 어려운 점을 들어 재취업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퇴직 베이비부머 창업보다는 재취업으로 유도해야, 연합뉴스, 2015. 9. 27』).

경험과 역량이 있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재취업의 기회가 줄어들어 따라 바람과 거리가 먼 일/노동을 쫓기다시피 하게 된다.<sup>38)</sup> 이때 ‘호모 라보란스’로서 ‘노동하는 인간’이 아니라 “굴레를 짊어진 짐승처럼 매일 고된 일을 되풀이해야 하는 ‘일하는 동물’(Animal laborans)”로<sup>39)</sup> 살아갈 가능성이 재취업이 불가피한 그들에게 상존한다. 이러한 실정은 “기계화로서의 산업화는 인간의 시간을 기계의 시간에 동화”시키려는 것으로 이해하는 재독 철학자 한병철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설명된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삶은 여기서 “노동에 의해 지배” 당하고 “사색적 삶”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고 만다. 그 결과 사색 능력의 상실이 초래되고 일하는 인간은 ‘노동하는 동물’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때 인간의 삶은 마치 “기계의 작업 과정”을 닮아 있어 “오직 쉬는 시간, 일이 없는 막간, 일의 피로에서 회복하여 다시 최상의 컨디션으로 일에 몸 바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외의 시간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sup>40)</sup>

이와 관련하여 초대교부들은 “지나친 노동(일)”에 대한 경고를 잊지 않았다. 그들은 “많은 일로 분주”하고 “세상 고역에 속박” 당하는 것에서 벗어나 “안식과 예배를 위한 시간”을 갖도록 충고하고 있다. 그들의 이러한 관점은 “노동의 결과인 부(wealth)”보다는 더욱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중시하고 강조하는 것이다. 물질이나 소유에 치우치거나 그것들에 구속되거나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기를 교훈한다.<sup>41)</sup> 사실, 생존을 위한 불가피함이 노동의 이유라면 그 경우 노동은 자유의 상실을 말하며 그만

38) 서울시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창업을 희망하는 61.2%가 생애 주된 일자리와 무관한 분야에서 일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글).

39) Richard Sennett, *The Craftsman*, 김홍식 역, 『장인』(서울: 21세기북스, 2010), 21.

40) Han Byung Chul, *Duft der Zeit*, 김태환 역, 『시간의 향기』(서울: 문학과 지성서, 2013), 148.

41) Miroslav Volf, *Work in Spirit: Toward a Theology of Work*(Eugene, Oregon: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1), 72.

큼 ‘인간됨’과는 괴리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고통’과 ‘수고’가 지배적으로 내재된 ‘노동’(labor)<sup>42)</sup>으로 “부단한 생산과 소비의 순환 과정에 종속”되어 있어 단지 ‘노동하는 동물’에 가까운<sup>43)</sup> 직업/일은 생계를 위한 수단이란 이해가 위주가 되기에 의미와 ‘가치’ 있는 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보람’이나 ‘만족’ 등이 부재할 가능성이 높다.

## 2. 노동/일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

계속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요 5:17) 성경에서 우리는 다양한 일꾼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하나님을 읽을 수 있다(예, ‘정원사’ 창 2:8; ‘용기장이’ 렘 18: 6, ‘교사’ 시 143:10, ‘포도원지기’ 사 5:1-7, ‘대장장이’ 겔 22:20, ‘의사’ 마 8:16, ‘목자’ 시 23 등).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이후 계속해 “지금도 창조하고 지속시키시며 구원하고 성취”하고 계신다.<sup>44)</sup>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활동’을 본받으며 그분이 일하시는 것처럼 노동/일을 하고 직업을 갖도록 부름 받았다. 일/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이해와 거리가 있는 성경적 관점은 무엇보다도 ‘문화명령’(The Cultural Mandate)과 연관된다(창1:28). 그것에 따르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동산을 “맡아서 돌보게”(창 2:15) 하셨다. 이와 일치하고 노동을 경시하는 헬라 철학적 시각과는 달리, 초대교부들은 육체노동을 “불명예스럽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대신, 외려 “존경스러운” 행위로 인식했다.<sup>45)</sup> 이런 의미에서 노동은 “고귀”한 것으로 받

42) Arendt, 앞의 책, 134. [원주 3] & [원주 5].

43) 이창익,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 『주간조선』, 1940호(2007. 1. 29)  
[http://weekly1.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1/23/2007012377005.html](http://weekly1.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1/23/2007012377005.html), 2016. 6.10.

44) R. Paul Stevens, *Work Matters*, 주성현 역, 『일의 신학』(서울: CUP, 2014), 24.

45) Volf, *Work in the Spirit*, 71-72.

아들여졌고 나태를 멀리하는 것과 성실한 노동이 장려되었다.<sup>46)</sup> 바울도 육체적인 노동에 참여할 것을 분명한 어조로 훈계하고 있으며(살전 4:11; 살후 3:10) 초대교부들은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선한 목적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노동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sup>47)</sup>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종(노예)의 형체를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노동의 피로움”에 대한 이해와 “계속될 인간 조건의 하나인 노동”에 대한 적극성이 가장 명확히 드러난다(빌 2:6-7; 요 5:17). “일꾼”과 “노동자”는 실제로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정당하게 부여될 수 있는 호칭이다. “인간의 범죄로 노동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으나(창 3:17-19)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 아래 있는 노동[이] 본래적인 창조의 한 질서로” 회복되었다.<sup>48)</sup> 노동은 따라서 생계수단이나 “인간 사회 유지의 기능” 외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룩한 것”이며 “성스러운 것”으로 “초월의 영역에 속한 것”이다. 이처럼 몸소 노동자가 되셨고 노동자의 모습으로 사신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노동에 그 고역을 다 씻게 하고도 남는 신성함, 존엄함을 부여”하셨다.<sup>49)</sup>

나아가서 초대교부들에게서 발견되는 일의 신학은 속죄를 위한 육체의 노동을 긍정하는 면을 보여준다. 노동이 죄악 되고 불순종하는 육욕 억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나태는 “영혼의 적”으로 간주되었으며 “힘든 일”이 “영적 수련과 연단”을 위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처럼 유혹을 억제하고 겸손을 함양하며, 육체를 제어하고 영혼을 훈련시키기 위한 노동/일은 기독교인들에게 제공하는 순기능으로 존중되었고 중요하게 여겨졌

46) Volf, 위의 책, 72.

47) 같은 책.

48) 박수암, 「신약성경의 직업관」,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127-129.

49) 김재영, 앞의 책, 23.

다.<sup>50)</sup> 육체노동으로 인한 힘듦, 수고, 모멸감 등이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인식되고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도리어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sup>51)</sup> 확실히 노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파괴하고 성경적 의미의 일/노동을 왜곡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처럼, 노동/일의 목적이 단지 경제적 보상이나 안락한 삶 혹은 명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격심한 육체적 노동이나 생계를 위해 불가피한 천한 일이라도 “품위”와 가치를 내포하고 있어 부정적으로만 여겨지지 않는다.<sup>52)</sup>

하지만 노동과 일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노동의 소외현상에 대해 수동적으로나 방관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는 그래서 일을 소명(work as vocation)으로 이해하는 것은 일/노동의 소외현상에 대해 “무관심(indifferent)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루터적 소명의 관점에서는 노동/일이 아무리 비인간화시키고, 단순 반복적이며 기계적이고 무의미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소명 개념은 변화가 요구되는 일/노동의 소외현상을 극복할 필요와 여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sup>53)</sup> 또한 일을 소명(vocation)으로 인식하는 관점은 모든 일과 직업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나 임무로 격상시킬 수 있어서 심지어 “영혼 없는 동작”(soulless movement)까지도 소명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 영혼 없는 일을 소명으로 이해하는 것은 작업환경과 작업의 질을 개선할 의지와 가능성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비인간화시키는 노동을 정당화 내지 그것에 마땅하지 않는

---

50) Volf, 앞의 책, 73.

51) William May, “*Animal Laborans and Homo Faber: Reflections on a Theology of Work*,” *The Thomist* 36.4(1972): 635.

52) 같은 책, 634-635.

53) Volf, 앞의 책, 107.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sup>54)</sup>

직업선택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수입이나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대체적 선택 기준이 사회적 명성과 연봉 혹은 경제적 안정 등 물질주의적인 측면에 따른 경향을 보여 왔다.<sup>55)</sup> 이러한 직업 선택의 경향은 일을 통한 자아실현과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삶,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본래적 직업의 기능과는 거리가 있는 직업관이다. 상기 직업관은 베이비부머들에게서도 예외 없이 드러난다. 그렇다면 그들이 은퇴 후 다시 불가피하게 생업 전선으로 몰릴 경우 노동/일이 어쩔 수 없는 고역이나 생계유지 수단으로만 여겨질 수 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보람 없는 노동과 무의미한 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이들이 ‘노동하는 동물’로 내몰릴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최근의 여러 연구와 지표가 시사하듯 우리는 양적확대와 대량소비와 일중독(workaholic)의 성장사회에서 삶의 질과 행복을 강조하는 성숙사회로 나아가야 한다.<sup>56)</sup> 이러한 전환의 실행은 인간과 인간 삶의 호모 루덴스적 요소와 측면을 고려하고 채택함으로 노동과 직업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이해와 적용의 시도가 요구된다고 본다.

54) Volf, 앞의 책, 108.

55) 임언 외,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장홍근, 「한국인의 직업의식과 직업윤리」, 『직업과 인력개발』, (2007, 가을), 22-31; Eli Ginsberg,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General Theo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51).

56) 이와 관련하여 다음을 보라. Niko Paech, *Befreiung vom Überfluss*, 고정희 역, 『성장으로부터의 해방: 탈성장 사회로 가는 길』(서울: 나무도시, 2015); Serge Latouche, *Sortir de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양상모 역, 『탈성장 사회』(서울: 오래된 생각, 2014); Richard Heinberg, *The End of Growth*, 노승영 역, 『제로성장시대가 온다』(서울: 부키, 2013); Clive Hamilton, *Growth Fetish*, 김홍식 역, 『성장숭배』(서울: 바오, 2011). 이러한 관점과 태도를 촉구하며 기독교적 직업윤리의 시각을 제시한 한 예로 Bob Bufford, *Halftime*, 이창신 역, 『하프타임』(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이 있다.

#### IV. 호모 라보란스(Homo Laborans)와 호모 루덴스(Homo Ludens)의 통합적 이해

지금까지의 논의는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직업인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필자는 이를 위해 호모 라보란스와 호모 루덴스의 통합적 이해를 제안하고자 한다. 통합적 이해는 노동/일 개념의 경제적이고 물질주의적 측면과는 ‘다른’ 관점에 대한 고찰을 요구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호모 루덴스의 고려와 논의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호모 루덴스적 요소의 고려와 논의를 통한 채택과 수용은 노동/일에 대한 경제적이고 물질주의적 이해 이외에 ‘의미’와 ‘가치’ 측면에 주목하고 오늘날 일과 직업에서 덕목과 역량으로 간주되는 ‘창의’와 ‘흥미’, 나아가서 노동을 인간화시키는 특징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 1. 호모 루덴스(Homo Ludens)<sup>57)</sup>

다니엘 핑크는 그의 저서 『새로운 미래가 온다』에서 ‘유희’(play)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인간 사회는 경제적 “생활수준”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삶의 만족도”는 연동되어 높아지지 않는 “부의 역설”을 경험하고 있다. 핑크는 “부의 역설”을 이겨내기 위해 앞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재능으로 ‘유희’(play)를 포함시킨다. 즉 “진지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웃음, 명랑한 마음, 게임, 유머”가 요구되며 “지나친 진지함”은 “사회생활”과 개인의 “풍요로운 삶”에 오히려 역기능을 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시대는 따라서 “일상생활”뿐 아니라

57) 호이징하는 ‘놀이’를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힌다. Hohan Huizinga,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 Element in Culture*, 김윤수 역, 『호모 루덴스』(서울: 까치글방, 1977), 18.

“업무”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sup>58)</sup>

유사하게 스투어트 브라운과 크리스토퍼 본은 『플레이 즐거움의 발견』에서 인간의 본성은 “생물학적으로 놀이를 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놀이가 유발하는 노동/일을 위한 중요한 자질을 소개하고 있다.<sup>59)</sup> 구체적으로 그것은 “창의성”, “호기심과 관찰력” 함양, “활력의 재충전”, 업무에 적용 가능한 “신선한 아이디어” 획득, 직장에서 “사회적인 결속”을 다지는 역할 등이다.<sup>60)</sup>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업무를 가장 ‘잘’ 수행하는 방법은 일을 ‘유희’ 혹은 ‘놀이’로 보는 관점과 밀접히 연관된다.<sup>61)</sup> 브라운과 본은 사회에 편만해 있는 놀이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시각의 수정을 제안하며 놀이의 반대말은 ‘일’(work)이 아니라 ‘우울함’(depression)이라고 설명한다. 나아가서 “발명과 혁신”에 필요한 “창의성과 탄력성”을 가져오고 새로운 생각을 낳는 것이 “놀이”라고 지적한다.<sup>62)</sup> 이와 관련하여, 네덜란드의 문화사가 요한 호이징하는 인간의 본래적 특질을 이성이나 ‘제작’으로 보는 대신 ‘놀이’ 혹은 ‘유희’로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인간을 이성적 존재인 ‘사유하는 인간’(Homo Sapiens)이나 ‘제작’을 특징으로 하는 ‘호모 파베르’(Homo faber)로 이해하기 보다는 ‘호모 루덴스’(Homo ludens), 즉 ‘놀이하는 인간’으로 파악하였다.<sup>63)</sup> 그가 이해하는 ‘놀이’는 자발적인 행위가 첫 번째 특징이다. 놀이는 비자발적 동기에 의

58) Daniel Pink, *A Whole New Mind*, 김명철 역, 『새로운 미래가 온다』(서울: 한국경제신문, 2012), 96, 196-225.

59) Stuart Brown and Christopher Vaughan, *Play: How It Shapes the Brain, Opens the Imagination, and Invigorates the Soul*, 윤미나 역, 『플레이 즐거움의 발견』(서울: 흐름출판, 2010), 184.

60) 위의 책, 185, 193-194.

61) 위의 책, 187-193.

62) 위의 책, 25.

63) 김기정, “요한 호이징아의 놀이와 문화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인문연구』 63(2011), 323-352.

한 “물리적 필요”나 “도덕적 의무” 혹은 “임무”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놀이는 “자유스러운 것”으로 바로 “자유”며 “자유 시간”에 행해지는 것이다.<sup>64)</sup>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 놀이는 “일상적인” 혹은 “실제의” 삶이 아니라 거기서 자유롭게 벗어나 “일시적인 활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sup>65)</sup> 일상적인 혹은 실제의 생활이 아니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이나 이해관계”가 초래하거나 내포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sup>66)</sup> 호이징하는 계속해서 ‘놀이’가 우리의 삶을 “가꾸어 주고 확대”시켜 준다고 설명한다. 놀이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공동생활이라는 이상”을 만족시키기고 우리 삶의 “보완자”로서 “삶 전체의 불가결한 한 요소”라고 설명한다.<sup>67)</sup> 인간은 이성적 존재 이상이며 “비이성적인 것”으로서 “초 논리적 특성”을 지닌 놀이는 인간의 특질을 정확히 노정한다.<sup>68)</sup> 그리고 자유로운 놀이는 “일상 세계 밖”에서 일어나지만 참여자들을 “강렬하고 완전히 사로잡기에” 고 유한 특징을 갖는 “사회적 단체의 형성을 촉진”시킨다.<sup>69)</sup> 또한 유의할만한 놀이의 속성은 최고의 예가되는 예배를 규정하는 “목적이 없으나 의미는 있는(zwecklos aber doch sinnvoll)” 것이며 우리를 “진지함”을 넘어서 “아름답고 성스러운 경지”에 진입할 수도 있게 한다.<sup>70)</sup>

노동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놀이는 흔히 비생산적으로 인식된다. 도도히 흐르는 산업자본주의와 가속되는 기술의 발전은 “놀이 정신을 포기하고 승리만을 쫓는 ‘지나친 진지함’의 문화를 낳았다. 그 결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본과 기술에 종속되어 노동을 하는 사회”에서 “어린아이처

---

64) Huizinga, 앞의 책, 19.

65) 위의 책, 20.

66) 김기정, 앞의 글, 336.

67) Huizinga, 앞의 책, 21.

68) 위의 책, 13.

69) 위의 책, 27.

70) 위의 책, 35-36.

럼 노는” 놀이는 사라졌다고 진단된다.<sup>71)</sup> 어쩌면 놀이가 인간의 삶과 문화에서 쇠퇴와 변질(거짓된 놀이)을 겪음으로써 ‘노동하는 인간’을 ‘노동하는 동물’로 몰아가는 일의 왜곡과 노동의 소외현상이 초래되었을 것이다.<sup>72)</sup>

이와 달리, 스튜어트 브라운과 크리스토퍼 본은 『플레이 즐거움의 발견』에서 놀이와 일이 “서로의 적”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상보적(相補的)이라고 밝힌다. 그래서 “둘이 아니면 하나도 잘될 수 없는 관계” 때문에 양자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한다.<sup>73)</sup> 우리는 놀이를 통해 “새로움과 자연스러운 흐름”, “순간에 충실한 느낌”, “발견의 느낌과 생동감”이 필요하며, 일을 통해서서는 “목적의식과 경제적 안정, 타인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사회에 유용한 존재란 느낌과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얻을 수 있다.<sup>74)</sup> 또한 스티븐 나흐마노비치는 자신의 저서 『놀이, 마르지 않는 창조의 샘』에서 이렇게 말한다. 놀이는 “공식적으로 동떨어진 요소들”을 하나로 합치고 우리를 “사회적 위계관계”에서 해방시키며 “사람, 동물, 사물, 아이디어, 이미지, 우리 자신과 새롭게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발견”하도록 도움으로써 우리를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고 “행동 영역”을 확장시키며 “유연한 적응력”을 길러준다.<sup>75)</sup> 그리고 놀이는 “꾸미지 않고 단순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안의 아이 같은 모습인 우리 “내면의 첫 번째 목소리”이며 우리의 “창조력을 발휘하고 자기 전체를 온전히 사용하는 것”은 놀이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에 우리가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조건은 “창조적인 상태”에서다.<sup>76)</sup> 그러나 우리는 감각적인 것과 지성적인 것에 대한

71) 김기정, 앞의 책, 332.

72) Huizinga, 앞의 책, 307-308.

73) Brown and Vaughan, 앞의 책, 183.

74) 위의 책, 183-184.

75) Stephen Nachmanovitch, *Free Play*, 이상원 역, 『놀이, 마르지 않는 창조의 샘』(서울: 예코의 서재, 2008), 64.

이분법적 논리 속에서 노동과 놀이를 갈등관계로 이해해왔고 이러한 이해 하에 “문화를 인류의 특권”으로 보는 “이성주의 혹은 논리중심주의”의 시각과 대조적으로 놀이는 “인간의 본능 혹은 자연 상태”로 전락하여 단지 “오락”이나 “현실도피”로 받아들여진다.<sup>77)</sup>

## 2. 직업인식 변화 필요성을 위한 호모 라보란스(Homo Laborans)와 호모 루덴스(Homo Ludens)의 통합적 이해

그렇다면 ‘호모 라보란스’와 ‘호모 루덴스’는 어떻게 통합을 이룰 수 있는가? 볼프는 이와 관련 여가(leisure) 개념을 끌어들이어 “좋은 여가”(good leisure)의 중요성과 내용을 설명한다. 여가와 일은 구별되고 동일할 수 없으나 “완전히 서로 무관하지는” 않으며 일이 여가에 가까울수록 일은 “인간적”일 수 있다.<sup>78)</sup> 그가 말하는 여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것”, “자신의 실력을 즐겁게 발휘하거나 개발하는 것”, “상호 간의 유대와 공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누리는 것을 포함한다.<sup>79)</sup> 이러한 활동들은 ‘공감할 수 있는 힘’, ‘호기심과 열의’, 타자를 ‘존중하는 마음’, ‘예술적이고, 초월적이며, 심리적 공감대’ 등의 직업역량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sup>80)</sup> 그리고 이러한 볼프의 여가 개념은 앞에서 살펴본 ‘호모 루덴스’의 특징적 요소들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친화력을 지닐 수 있음을 알 수 있다.<sup>81)</sup>

76) 위의 책, 72.

77) 김경섭, “놀이학의 선구자, 호이징하와 까이와의 놀이담론 연구,” 『인문연구』 54 (2008), 150.

78) Volf, 앞의 책, 134.

79) 위의 책, 136.

80) 이상훈, “청년 고(高)실업시대와 기독교 직업윤리교육,” 『기독교사회윤리』 29(2014), 395-399.

81) 앞의 ‘호모 루덴스 (Homo ludens, 유희인)’, 특히 각주 61)을 참조하라.

볼프는 ‘일의 신학’ 혹은 노동/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성령론적 (pneumatological) 접근을 시도한다. 성령은 모든 신자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시고 그들은 모두 성령에 의해 다양한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는다. 만약 세상의 일이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협력”을 의미한다. ‘은사’는 단지 특정한 임무/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부르심일 뿐 아니라 그 과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동’(inspiration)을 주시고 재능을 부여하시는 것(gifting)을 말한다.<sup>82)</sup> 노동/일에 대한 성령론적 접근에서는 일/노동을 인간화하지(humanize) 않을 경우, 노동/일을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노동/일을 “하나님과의 협력”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노동의 소외현상을 개선하고 극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각 개인의 저마다 다른 은사는 소중한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일/노동이 “새로운 창조”(new creation)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은사적 협력”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이유다.<sup>83)</sup> 성령의 충만한 에너지로부터 일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에, 노동/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성령께서 힘과 재능을 주시기 때문이다.<sup>84)</sup> 따라서 우리의 일/노동이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프는 크리스천의 노동관은 은사를 주셔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노동/일”로 인식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85)</sup>

일과 일의 신학에 대한 성령론적 접근을 통해, 볼프는 “성령께서 영감과 은사를 주셔서 일을 하게끔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즐거운 사귀기를 향유하도록 하신다.”고 밝힌다.<sup>86)</sup> 이와 관련해 볼프는, 희랍철학적이

---

82) Volf, 앞의 책, 114.

83) 위의 책, 116.

84) 위의 책, 121.

85) 위의 책, 123.

해 및 이에 영향을 받은 일에 대한 기독교의 전통적 경시와 여가에 대한 현대의 폄하와 달리, 성서의 가르침에 충실한 신학은 일/노동을 여가에 종속시키거나 반대로 여가를 일/노동에 부차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을 거부한다고 지적한다.<sup>87)</sup> 대신 성령을 통한 은사는 세상에서의 활동인 일/노동과 예전적 활동인 예배 행위 양자 모두와 관계된다. 다시 말해, “영적” 과제에 해당하는 은사(예배)와 “세속적” 임무에 해당하는 은사(노동) 간에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성령께서 차등이나 차별 없이 노동하게도 하시고 예배드리게도 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상에서 기독교인의(그래서 보편적 적용가능성을 전제로 가장 바람직한) 삶의 방식은 노동과 예배가 “교호적”이지 한 쪽이 다른 쪽에 “종속적”이지 않다.<sup>88)</sup> 일로부터의 해방 즉 “여가활동의 한 형태”로서 볼프에게 예배는 일과 업무활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로 일에 대한 태도와 개인의 종교적 성향 간에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sup>89)</sup>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교에서, 우선 예배는 이웃과의 평화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한다. 또한 “우리를 감동시키시기에 이루어지는 성령에의 참여인 예배는 우리가 하는 일을 하나님의 새 창조에 복무하는 창의적인 활동이 되도록 격려하신다.”<sup>90)</sup>

일 또는 노동에서 소외란 볼프에 따르면 “일/노동이 마땅히 어떠해야 하는 것”과 “직업인에게 일이 실제로 수행되고 경험되는 것 사이의 심각한

---

86) 위의 책, 137.

87) 위의 책, 138.

88) 위의 책, 139.

89) 위의 책, 140. 예를 들어 볼프가 제시하는 개인의 종교성향과 일에 대한 태도의 상관성에 관한 호주에서의 사회학적 연구를 보라. K. Hawtrey, "Work and Leisure in Evangelical Focus," paper presented as a part of a worldwide study process organized by Oxford Conference on Christian Faith and Economics, Australia, January, 1989.

90) 같은 책.

한 괴리”를 말한다.<sup>91)</sup> 그로 인해 일이 사람들의 정신과 육체를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노동/일의 소외 현상의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노동/일에 있어 “자기 주도성”(self-directedness)과 “자기 개발 기회의 부재”에서 발견된다.<sup>92)</sup> 그렇다면 노동/일의 인간화란 무엇인가? 일/노동에 있어 사람들을 단순히 도구로가 아닌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참여와 자기 개발”이 권장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근로자들이 자기주도성을 확보하며 “각자의 재능을 사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sup>93)</sup> 인간은 사회적 본성을 지녔기에 일/노동이 인간적이려면 노동/일하는 것이 자율적이어야 하고, 동시에 공동선 즉 타자를 섬기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sup>94)</sup> 인간은 서로를 위한 존재로 살 때 진정한 인간성의 실현을 경험할 수 있으며 남을 섬기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은 교제의 성령을 통해 오는 자진하는 마음과 내적 힘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후 13:13).<sup>95)</sup>

## V. 결 론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현신”한 결과 베이비붐 세대는 국가경제를 “반석”에 올려놓았다. 그들의 성취는 그러나 자신들에게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인생”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산업역군으로서 달성한 위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데에는 실패”했다고 진단한다.<sup>96)</sup>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들을 대표하는 사회학자의 이러한 반성적 성찰은

91) 위의 책, 157. ‘소외’에 관한 성서적 비판에 관해서는 위의 책, 164-167을 보라.

92) 위의 책, 170.

93) 위의 책, 177.

94) 위의 책, 185-186, 190.

95) 위의 책, 193.

96) 송호근, 앞의 책, 232-233.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문제를 압축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인생을 ‘노동하는 인간’(Homo laborans)로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 그러나 부모부양과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짊어져왔던 그들은 자신들의 미래와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게 되었다. 과거 ‘산업역군들’이 제2의 경제활동을 위해 재취업이나 제2의 경제활동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제2의 경제활동에 대한 절실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부머들이 일과 직업에 관해 이전과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혹은 심지어 ‘노동하는 동물(Animal laborans)’적 재취업 전선에 내몰릴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이비붐세대의 직업관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호모 라보란스’와 ‘호모 루덴스’의 통합적 이해를 시도하였다. ‘호모 라보란스’와 ‘호모 루덴스’의 통합적 이해는 기독교적 소명 개념의 비판적 평가와 일에 대한 성령론적 접근을 통해 보다 설득력 있는 ‘일의 신학’ 논의에 기여할 것이다. 상호 매우 이질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양자의 통합적 관점은 ‘호모 라보란스’의 비인간화시키는 일/노동의 소외현상, 즉 ‘노동하는 동물’적 일/노동과 경제활동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이 재취업이나 제2의 경제활동을 원하는 베이비붐 세대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노동관과 직업 개념 형성에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나아가서 일과 직업에 대한 베이비붐 세대의 인식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의미 있고 행복한 ‘제2인생’과 ‘노동의 인간화’는 앞으로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인생과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어갈 베이비붐 세대에게 새로운 직업윤리의 원칙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검섭, “놀이학의 선구자, 하위징아와 까이와의 놀이담론연구,” 『인문연구』, 54(2008), 147-190.
- 김기정, “요한호이징아의 놀이와 문화에 대한 비판적연구,” 『인문연구』 63(2011), 323-352.
- 김재영 편저, 『직업과 소명』. 서울: IVP, 1989.
- 김태유, 『은퇴가 없는 나라-국가 경제를 이모작하라』.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3.
- 박수암, 『신약성경의 직업관』.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01: 117-135.
- 방하남 외,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 생애와 은퇴 과정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1.
- \_\_\_\_\_,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근로 생애 (Work Life)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0.
- 손유미·김찬훈,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창출과 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 손유미·이성, 『베이비붐 세대 제 2인생 설계 구축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1.
- 송호근, 『그들은 소리 내 울지 않는다』. 서울: 이와우, 2013.
- 윤석명 외, 『베이비부머 은퇴 대비 정책 개발 연구: 인적자원 관리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 이상훈, “청년 고(高)실업시대와 기독교 직업윤리교육,” 『기독교사회윤리』 29(2014), 377-413.
- \_\_\_\_\_,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본 교회개혁과 고령화사회,” 『기독교사회윤리』 25(2013), 31-63.
- 이성립, “과소비·부채 가계의 가계경제구조분석: 과소비·부채 가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6-1(2005), 73-95.
- 이준협, “베이비붐 세대 고용의 특징과 시사점,” 『경제주평』 2013, 1-14.
- 이형기, 『중세사회의 직업관과 루터신학에 있어서의 직업이해』. 오성춘 편,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136-189.
- 임언 외,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0.

- 장흥근, 「한국인의 직업의식과 직업윤리」, 『직업과 인력개발』, (2007, 가을), 22-31.
- 전홍택 외, 「100세 시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 정성호, 『중년의 사회학』, 서울: 살림, 2006.
- 채진원, “프락시스(praxis) 관점에 있어서 아렌트와 마르크스의 횡단성(transversality),” 『철학사상』 33(2009), 275-306.
- 통계청, 「베이비부머 및 에코 세대의 인구·사회적 특성분석: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중심으로」, 2011.
- Arendt, Hannah, *The Human Condition*. 이진우·태정호 역. 『인간의 조건』, 서울: 한길사, 1996.
- Bok, Derek, *The Politics of Happiness*. 추홍희 역. 『행복 국가를 정치하라』, 서울: 지안, 2011.
- Brooks, David, *The Road to Character*. 김희정 역. 『인간의 품격』, 서울: 부키, 2010.
- Brown, Stuart and Christopher Vaughan, *Play: How It Shapes the Brain, Opens the Imagination, and Invigorates the Soul*. 윤미나 역. 『플레이 즐거움의 발견』, 서울: 흐름출판, 2010.
- Bufford, Bob, *Halftime*. 이창신 역. 『하프타임』,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Hamilton, Clive, *Growth Fetish*. 김홍식 역. 『성장중매』, 서울: 바오, 2011.
- Heinberg, Richard, *The End of Growth*. 노승영 역. 『제로성장시대가 온다』, 서울: 부키, 2013.
- Han, Byung Chul, *Duft der Zeit*. 김태환 역. 『시간의 향기』, 서울: 문학과 지성서, 2013.
- \_\_\_\_\_, *Müdigkeits Gesellschaft*. 김태환 역. 『피로사회』, 서울: 문학과 지성서, 2012.
- Huizinga, Johan, *Homo Ludens: A Study of the Play Element in Culture*. 김윤수 역. 『호모 루덴스』, 서울: 까치글방, 1997.
- Latouche, Serge, *Sortir de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양상모 역. 『탈성장 사회』, 서울: 오래된 생각, 2014.
- May, William, “Animal Laborans and Homo Faber: Reflections on a Theology of Work,” *The Thomist* 36.4(1972): 626-644.

- Nachmanovitch, Stephen. *Free Play: Improvisation in Life and Art*. 이상원 역. 『놀이, 마르지 않는 창조와 샘』. 서울: 에코의 서재, 2008.
- Paech, Niko. *Befreiung vom Überfluss*. 고정희 역. 『성장으로부터의 해방: 탈성장 사회로 가는 길』. 서울: 나무도시, 2015.
- Pink, Daniel H. *A Whole New World*. 김명철 역. 『새로운 미래가 온다』. 서울: 한 국경제신문, 2012.
- Sadler, William. 김경숙 역. 『서드 에이지, 마흔이후 30년』. 서울: 사이, 2006.
- \_\_\_\_\_, James H. Krefft. 김경숙 역. 『핫 에이지, 마흔 이후 30년』. 서울: 사이, 2008.
- Sennett, Richard. *The Craftsman*. 김홍식 역. 『장인』. 서울: 21세기북스, 2010.
- Stevens, R. Paul. *Work Matters*. 주성현 역. 『일의 신학』. 서울: CUP, 2014.
- Volf, Miroslav. *Work in Spirit: Toward a Theology of Work*(Eugene, Oregon: Wipf and Stock Publishers, 2001.

논문투고일: 2016년 06월 30일

심사개시일: 2016년 07월 08일

게재확정일: 2016년 08월 05일

---

• 국 문 초 록 •

---

부모부양과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동시에 짊어져왔던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자신들의 미래와 노후는 준비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게 되었다. 따라서 제2의 경제활동을 위해 재취업이나 제2의 경제활동이 필요하다. 그러나 제2의 경제활동에 대한 절실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부머들이 일과 직업에 관해 이전과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혹은 심지어 '노동하는 동물(Animal laborans)'적 재취업 전선에 내몰릴 수는 없다. 직업인식에 변화가 없이 시도되는 베이비부머들의 재취업 혹은 제2의 경제활동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인간화시키는 노동과 '고된' 일을 매일 반복해야 하는 '인간'을 가리키는 '노동하는 동물'(Animal laborans)로 전락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들의 재취업전선에서 의미 있고 행복한 제2의 경제활동에 요구되는 직업인식 변화를 위해 보다 인간화하는 (humanize) 일과 직업을 향한 '호모 루덴스'(Homo ludens) 개념을 논의 및 도입하고자 한다. 이는 '호모 라보란스'에만 제한된 직업관이 야기할 수 있는 노동의 소외현상과 일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호모 라보란스'와 '호모 루덴스'의 통합적 이해를 모색하려는 시도이다. 이어서 '호모 라보란스'와 '호모 루덴스'의 통합적 이해는 일과 '놀이' 혹은 노동과 '여가'를 상호 배타적이 아니라 보완적으로 인식하는 노동/일 그리고 일의 신학에 대한 성령론적(pneumatological)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후자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주제어:** 베이비부머, 일, 직업, 일의 신학, 노동인, 유희인, 인간화, 성령론

---